

성적놀이

「니 잘못이 아니야」(구성에 저, 올리브출판사)에서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유아기때의 성적놀이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유아기의 자연스러운 성장난을 어른들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최고의 쾌락을 누릴 수도 있고 성 혐오자가 되는 것이다.

삶을 사랑하는 자유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 세워진 실험학교가 있다, 영국런던 근처에 있는 섬머힐 학교이다. 1921년에 니일(A.S Neill)이라는 사람이 세웠는데 지금까지도 현존하고 있다. 이곳은 5살부터 16살까지 세계각국에서 온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나라마다 실험학교, 대안학교가 세워지는데 하나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이 학교의 니일교장처럼 유아와 사춘기 아이들을 깊이 있고 지속적으로 연구해본 사람을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도<행복한 학교 서머힐>이라는 책이 번역되어 나와 있다.

니일 교장은 소위 문제아로 찍힌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 학교에 불을 지르고 물건도 훔치고 공격적인 아이들일수록 그 밑바닥에는 엄청난 억압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이억압을 이루는 내용은 크게 성과 힘의 문제였다. 유아기 때 자연스러운 성적 욕구를 심하게 억압하여 죄의식을 주었을 경우와 부모나 교사의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생활전반에서 물리적, 심리적 힘이 행사된 경우에 그 정도에 따라 문제가 심각해짐을 알았다.

물론 불을 지르는 아이처럼 가장 고질적인 것을 성과 힘이 합해진 경우였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무조건 믿어주면서 자유를 주었다. 공부가 하기 싫으면 그대로 두고 도둑질을 해도 훔치고 싶었던 물건을 사라고 오히려 돈을 주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을 니일 혼자서 내릴게 아니고 전체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었는데, 그 전체 회의란 다섯 살부터 교장까지 모두가 다 참여하는 회의였다. 교장도 한 표밖에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아이들 판이었다. 엉뚱한 결론으로 끝나 시행착오도 겪긴 했지만 그런 시행착오까지 같이 겪어내면서 모두들 하계 성숙해 갔다.

몇 십년동안 갖가지 방법으로 권위와 위선과 싸우며 자아를 찾게 하는 과정에서 니일 교장이 깨달은 것은 어린이는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슬기롭고 실제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성에 대해서도 자위행위는 물론 어떤 것이든 자유롭게 표현하게 했고 새로 들어온 고학년 학생이 야한 그림을 보여주며 야한 얘기를 계속하더라도 내버려 두었다. 성에 대한 어떤 발칙한 질문을 하더라도 진실 되게 솔직히 다 대답해주었다.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다. 야한 얘기를 듣는 어린아이들도 시시하다는 듯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벌써 실제적인 얘기들을 다 들어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어색해진 고학년 학생은 더 이상 잘난 척 할 수 없었다. 음담패설도 힘을 잃었고 자위행위도 줄어들고 성놀이와 성추행도 나타나지 않았다. 도둑질도 재미가 없어졌고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거부하던 아이들도 인간에 대해 믿음이 싹트면서 똘가에 의욕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것을 보면서도 가장 바뀌지 않는 사람은 역시 부모들이었다. 부모가 변하지 않는 아이들은 갈등속에서 학교를 떠나기도 했다.

니일교장이 성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하게 하며 일체의 억압을 없애려고 한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경험도 한 몫을 했다. 여섯 살 때, 한 살 어린 여동생과 성기를 서로 보여주며 만지는 놀이를 했었다. 우연하게 서로의 성기를 발견하고 자연스레 성기를 가지고 놀았는데, 어느날 엄마가 그것을 보았다. 난리가 났다. 둘 다 호되게 매를 맞고 니일은 몇 시간이나 어두운 골방에 갇혀 있게 되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나중에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했다. 니일은 말한다. 이 때의 충격에서 벗어나는데 수 십년이 걸렸다고, 그리고 어떤 때는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그때 만약 엄마가 여동생과의 성적 놀이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버렸다면 자신과 여동생은 성에 대해 건전한 태도를 갖고 성장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니일은 더 나아가 유아기의 성적 놀이에 대해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어른이 되어서 남성의 성교불능과 여성의 불감증이라는 것이 어린시절의 이성과의 성놀이를 했을 때 맨 처음으로 방해받은 것에서 유래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니일은 어린 시절의 이성간의 성장난이야말로 어른이 된 후의 건강하고 균형잡힌 성생활을 영위하는 데 그 왕도가 되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어린이들이 성에 대한 도덕적인 억압을 받지 않았을 때는 난잡스러운 사춘기기가 아니라 건강한 사춘기에 이른다는 것을 긴 세월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직접 확인도 할 수 있었다.

이어서 니일은 자신의 쾌락에 대한 입장을 펼친다.

물론 인생에서 성이 전부는 아니다. 우정, 일, 즐거움과 슬픔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살아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성은 인생의 최고의 쾌락일 수 있다. 애정이 수반된 성행위는 황홀경의 최고의 상태다. 이유는 그것이 서로를 주고 받는 최고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어른들은 성을 혐오하고 있다. 혐오감속에서 영화나 잡지, 쇼와 음담패설 등 한낱 성의 대용물들로 성을 즐기고 있다. 실제 만족스러운 애정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대용물로 성을 풀지는 않는다. 알고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최고의 쾌락을 죄의식을 가지고서 즐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억압은 인간생활의 모든 면에 영향을 끼쳐 인생을 좁고 불행하며 증오심에 가득 차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을 혐오하면 삶을 혐오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성을 혐오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정말로 성을 혐오하면 가장 나쁘게는 자기 부전이나 불감증의 성생활이 될 것이고, 가장 좋더라도 성적 만족을 충분히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성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힘은 반드시 어디론가 딴 곳으로 가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강한 충동이어서 그냥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불안과 증오심으로 변하게 된다.

나는 실제 긴 세월 아이들과 숙식을 함께하며 터득한 니일 교장의 얘기에 상당히 공감하는 편이다. 유아기 때의 성적놀이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유아기의 자연스런 성장난을 어른

들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최고의 쾌락을 누릴 수도 있고 성 혐오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니일의 실제 고백과 몇 십년을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터득하고 변화시킨 실제 개념들이 있기에 다른 어떤 근거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 자유로운 어린이, 자유로운 사람을 문란하지 않다. 오히려 좋은 성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삶을 사랑하기에 생명의 소중함을 보다 많이 느끼고, 믿음과 존중을 익혔기에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며 살아 있는 몸의 감각도 충분히 느꼈기에 주고받는 최고의 쾌락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충분히 즐겨봤기에 음란물이나 음담패설을 좋아하는 호기심도 물러갈 것이다.

그래도 우리 부모에게는 남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아이들의 성놀이를 이해는 하겠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그냥 모른 채 하라는 것인지 그래도 뭔가 말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또 참아야 할지 그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다.

우선은 크게 성장난과 성추행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어디까지가 성 장난이고 어디부터가 성폭행인지 구분이 필요할 것이다.

어린이의 성기 접촉에는 대상에 따라 크게 세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하는 성기 접촉이고

둘째는 또래끼리 이루어지는 성기 접촉이고

셋째는 청소년을 비롯해 어른들로부터 이루어지는 성기접촉이 있을 것이다.

자기자신이 하는 것은 자위행위이고, 유아기 또래끼리 만지며 접촉하는 것은 성장난인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청소년 이상 성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기접촉은 성추행이나 성폭행인 것이다. 상담을 받으면서 느낀 것인데, 부모나 교사들이 제일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 또래끼리 성놀이를 성폭행과 혼동하는 것이다.

또래끼리 성놀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식이 자발적인 참여냐 강제적인 것이냐에 따라 양상이 다르긴 하다. 아무리 어린 나이라고 하더라도 강제성을 띠어 상처를 주는 행동이면 피해자가 있게 마련이고 가해자도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본다면 그 방식이 잘못되어 교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또래끼리의 성접촉은 성놀이의 범주로 넣어야 한다고 본다. 나이 차이가 조금 있더라도 모두가 유아기 아이라면 성놀리로 보아야 한다.

상처는 인정하지만 그 행위의 본질을 성놀리로 보느냐 성추행으로 보느냐는 유아기 아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

다음사례를 함께 살펴보자.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네 살 된 딸아이를 가끔 가까이 사는 시누이집에 맡겼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시누이집에는 일곱살 난 남자아이와 그 동생, 두 아들이 있습니다. 네 살 된 딸아이는 남자아이들이랑 놀아서 그런지 어수선했고 자기의 성기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엄마. 잠지는 엄마만 보는 거지?”하면 되묻곤 했

어요. 어떨 때는 음부가 아프다고 하고 괜히 바지를 벗고 “아이 창피해”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보여 주곤 했어요. 그때 그냥 호기심이 나서 그런가보다 하면서 아이를 타 일렀는데....

요 며칠 전 저희 시누이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아이들이 노는 방을 잘 놀고 있나 보러 들어가는데 한구석에서 일곱 살 난 녀석이 저희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는 무언가를 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슬쩍 “뭐해?” 하고 물었는데 일곱 살 난 녀석이 놀라면서 “자꾸 애가 어찌구 저찌구...” 얼버무리는데....

저는 저희아이가 사람을 잘 따르고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일곱 살 난 녀석을 귀찮게 했나 싶어 “아가야! 오빠한테 그러지마” 하면서 나왔죠.

그리고 나서 한참 뒤 아이들 보고 자라고 이불을 내주었는데. 아이들이 이불장난을 좋아하잖아요? 장난하나 보다 하고 불을 끄고 나왔는데, 한참 뒤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몰래 들어갔지요.

저희 아이랑 일곱 살 난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무언가를 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몰래 엿들으려 했는데. 일곱 살 난 아이가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저는 꺼림칙해서 저희 아이를 데리고 나왔지요, “아기야 오빠랑 그러고 있으면 안돼.”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꽤 오랜 시간을 일곱 살 난 아이가 저희 아이의 몸을 만졌던 것 같네요. 그날도 저희 아이가 “엄마, 짬지 아파”소리를 두 번이나 해서 두 번이나 물로 닦아주었으니까요. 그리고 가슴 젖꼭지가 아주 빨개져 있어서 열흘이 넘도록 상처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것은 어제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두 조카가 함께 자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 제 침대에 세 명의 아이들 모두를 누이고 일찍 자라고 불을 끄고 나왔지요. 저는 4개월 된 아기도 재워야 했기에 엮고 거실을 뱅뱅 돌고 있는데, 장난하는 소리가 나서 굳기잡고 재운다고 몽둥이를 들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동갑내기 조카는 저만치 있고 저희 아이와 일곱 살 난 아이는 이불에서 소곤거리고 있었어요. 순간 아찔하여 이불을 확 제치는 데 저는 너무 흥분하여서 들고 간 몽둥이로 일곱 살 난 아이 엉덩이를 한 대 때렸습니다. 일곱 살 난 아이가 바지를 내리고서 저희 아이보고 엉덩이를 만지라고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저희 아이의 옷은 올라가 가슴이 드러나 있고요.

“그러면 안돼. 동생이야. 다시는 그런 짓 하지마” 했어요. 저희 아이는 잠을 안잔다고 혼난 줄 알고 얼른 눈을 감고 자는 척하더라고요. 일곱 살 난 아이에게도 자라고 하고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지요. 일곱 살 난 아이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아무래도 안되겠다 싶어서 3분도 안되어서 두 조카를 어머니 방으로 보내고 저는 얼른 흥분된 마음을 달래면서 딸에게 물었어요.

나 : 아가야! 오빠랑 이불 속에서 뭐했어?

아이 : 소꿉놀이! 소꿉놀이야!

나 : 어떻게 하는 건데? 엄마랑 해보자.

아이 : 어어 이렇게, 이불을 쓰고 누워. 그리고 바지에 손을 쑥 넣어 팬티 속에 손을 넣어서 짬지를 만지고 배꼽을 만지고 엉덩이 그리고 쭈쭈를 만져...

나: 그러면 오빠 고추 보았어?

아이: 응

만져도 보았다더군요. 오빠 고추가 크고 짬지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그

사실을 일곱 살 난 아이에게 확인하고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지만, 다시 그러면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 해주었는데... 그리고 시누한테 이야기하면서 성교육시키라고 했죠.

아이들을 어떻게 추슬러야할 지 걱정과 우리 아이가 어이없이 어린오빠에게 성추행 당한 생각을 하면서 밤새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렇게 신호를 엄마한테 보냈는데도 알지 못했던 제 자신이 밉습니다. 다만 저희 아이가 그러한 것을 잊기를 바라고 자꾸 얘기하면 기억에 뚜렷이 남을까봐 “아가야 엄마가 오빠 엉덩이 때려준 것 보았지? 아가를 아프게 하면 엄마한테 일러. 알았지? 엄마가 때려줄 거니까. 등등” 이야기했는데요.

앞으로도 걱정이 많네요. 여자아이다 보니... 별일이...

혹시나 일곱 살 난 아이도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았는데 TV에도 시누이의 잠자리도 본 적이 없다더군요. 혼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 입장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뒤에도 외숙모하고 잘 따르는데 다음에 일곱 살 난 아이를 만나면 너무 미워서 어찌해야할지....

저 또한 지금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은근슬쩍 나를 만졌던 아는 오빠가 있었어요. 그때는 뭔지 몰랐지만 이상하다고는 느꼈는데... 그것은 성추행이었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이 커가는 가정에서까지 일어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주변에 그러한 위험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특별히 신경 쓴다고 한 것인데 등잔 밑이 어두웠네요....

저 정말로 괴롭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어떤가?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첫째, 유아기 아이들에게는 역시 성놀이가 소꿉장난인 것이다.

그것도 자연스레 일어나는 발견과 장난일 뿐이다. 텔레비전이나 부모의 성행위 장면과 상관이 없이 이루어진다. 엄마의 어린 시절 경험도 그 오빠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인지는 모르지만, 열 살 내외라면 그것도 성장난이었을 것이다. 엄마도 이제서야 성추행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졌지 그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예나 지금이나 유아기 시절의 아이들은 그랬던 것이다.

둘째, 아기 엄마의 마음이 밝은 것이 느껴진다.

엄마 자체가 순수한 동심 같다. 이불 장난을 이해하는 것이라든가, 조금 이상한 행동에서도 선입견 없이 대하는 것이라든가, 아이들 차원에서 대화하는 것을 봐서 엄마의 마음이 밝고 예쁘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엄마가 딸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방법도 탁월하다. 아무 거리낌없이 이불 속 장난을 신나게 이야기 하는 아이의 모습이 그려진다. 그러면 되는 것이다. 일곱 살 아이도 엉덩이를 한 대 맞기는 했지만 상처받은 느낌은 안 든다. 엄마가 뭐라고 얘기 했던 밝은 마음과 좋은 느낌이 손상된 것이 아니기에 이런 경우에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셋째, 엄마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딸아이가 그렇게도 신호를 보냈는데 엄마가 알아차리지 못해 자신이 밉다고 했는데 그건 오버한 것이다. 아이는 구조 요청을 보낸 적이 없다. 오빠에게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 아니

라 즐거워한 것이다. 이걸 분명히 성놀이였지 추행이 아니었다.

빨리 잊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아이는 마음의 큰 상처가 없기 때문에 잊고 자시고 할 일이 없다. 엄마가 더 이상 문제시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그냥 흘러가는 경험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먼 훗날 문득 그 장면이 떠오를 수 있지만 죄의식을 주지 않았다면 그렇게 나쁜 기억도 아닐 것이다. 약간 쑥스러워하면서 비시시 웃을 것이다. 아이는 성놀이를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아주 건강하다.

일곱 살 짜리 조카는 이미 눈치보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눈치를 보긴 하지만 오히려 그전에 해왔던 성 놀이에 대해 어른들이 몰랐기에 그래서 어떤 억압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건강한 편이다. 등잔 밑이 어두웠던 게 천만다행이었다. 숙모에게 엉덩이를 한 대 맞기는 했지만 그 시절이 미운 일곱 살이라 그 일 말고도 다른 일로도 자기부모에게 꿀밤을 많이 맞았을 것이다. 그런 꾸지람을 듣는 일 중의 하나로 느낄 것이다. 그리고 여자아이이다 보니 별일을 다 당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조금 지나친 생각이다. 여자들도 성적인 존재이고 유아기에는 여자아이도 서로 같이 놀이를 하는 것이다.

밝히는 아이라서 그런 게 아니다. 그냥 그런 것이다. 당했다는 생각과 앞으로도 가정에서 까지 당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피해의식을 만든 것이다. 어린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을 생각하며 밤새 울었다니 괜히 울었던 것이다. 당한 것이 아니라 같이 논 것이기 때문이다. 여자는 성을 모른다는 생각과 여자는 성적인 표현을 하면 안된다는, 지난날의 사회적인 인식이 알게 모르게 엄마에게도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자고 남자고 유아기 때 자연스런 성놀이를 하는 것은 아무 죄가 되지 않는다. 엄마는 웃어야 한다. 딸의 마음이 여전히 밝다면 그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좋은 성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남는 문제는 무엇일까?

놀이를 하며 만졌던 성기가 자꾸 아픈것이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몸에 상처가 남았다는 것이다. 큰일 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또 성놀이를 계속할 경우에는 성기도 계속 아플 수 있다. 엄마는 어떻게 했어야 옳았을까? 바로 성기기 아프다는 그 부분을 솔직하게 얘기했어야 했다. 협박으로서가 아니라 사실로 나타난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이랬으면 어땠을까? 엄마가 일이 있었던 다음날 일곱 살 난 조카를 불러 따로 말했다고 했는데 그때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엄마는 먼저 조카에 대해 미워하는 감정이 없도록 마음 정리부터 해야 한다. 이상하게 밝히는 아이로 봐서도 안된다. 조카에게는 엄마의 눈빛과 태도가 말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 숙모가 부른 것은 너를 야단치려고 부른 게 아니야. 숙모가 너와 의논할 게 있어서 부른 거야. 어제 너랑 동생이랑 이불속에서 놀았잖아? 그 전에도 몇 번 놀았었지? 서로 몸을 만지며 노는 게 재미있었지? 그래 숙모도 이해해. 그렇게 논 것을 잘못된 게 아니야. 궁금해서 그랬을 거야. 너는 똑똑한 아이라 궁금한 게 많았을 거야. 그런데 걱정할 일이 생겼어. 동생이 잠지가 아프대. 내가보니까 자꾸 만져서 그런 것 같아. 저 번에 너네 집에서 이불장난하고 나서도 동생이 잠지가 아프다고 해서 씻어주고 그랬거든. 그때는 숙모도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어제 알게 된거야. 너는 안 아프니? 고추가 아픈 적 없었어? 안 아팠다면 다행이야. 너도 아팠다면 고추를 너무 만져서 아팠을 거야. 동생은 여러 번 아팠는데. 여자애들은 잠자가 아프면 나중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여러번 아프게 되면 그곳에 병이

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숙모도 동생잡지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만지지도 않아. 앞으로 자꾸 만지면 또 아플건 데 어떡하면 좋겠니? 너는 오빠잖아? 너 동생을 좋아하지? 동생은 너 말고 다른 오빠도 없잖아. 네가 지켜줘야 하는 데 어떡해야 할까?

숙모 생각은 이래. 지금까지 서로 재미있게 놀아봤으니까, 이제는 소꿉놀이를 바꿔보면 어떨까? 다른 것으로 말이야. 서로 몸에 대해서도 다 알게 되어서 궁금한 것도 없을 것 같아. 동생이 잠지가 아프니까, 이제는 만지지 말고 네가 동생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 아프면 안되잖아? 혹시 동생이 자기 몸이 아픈데도 또 장난하자고 조르면, 그 때도 네가 잘 지켜줘. 만지면 아프니까 하지말자고 해. 동생은 어려서 잘 모르거든? 너는 멋진 오빠니까 잘 지켜줄 거야. 숙모는 너를 믿는다.”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진심은 통하는 법이다. 오히려 어린이라서 더 잘 통한다. 우리는 무수한 어린이와 함께 살았던 니일 교장의 말을 귀 담아 들어야 한다.

그의 결론.

어린이는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슬기롭고 실제적인 존재라는 것을 새겨둘 필요가 있다. 서머힐 학교에서는 다섯 살짜리 학생도 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내놓는다. 일곱 살짜리 조카라고 못할 리 없다. 그 정도 나이면 느낌도 있고 의견도 있다. 자신을 믿어주고 인정해 주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뿐이다. 그 아이를 미워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정말 딸아이의 진정한 오빠로서 믿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의견도 묻고 부탁도 해보는 거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말이다. 한번에 효과가 없다고 실망할 것도 없다. 죄의식을 심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몇 번이고 믿어주고 부탁하다보면 진실은 통하게 마련이고, 진정한 오빠 동생사이로 자리 잡아 갈 것이다. 두 집도 화목하게 지내게 될 것이다.

유치원이나 학원,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다. 아이들끼리 성놀이가 일어났을 경우, 그것이 학부모에게 알려지면, 대부분 여자아이쪽이지만, 당했다고 생각하는 학부모가 흥분을 한다.

마치 엄청난 성폭행이 이루어진 것처럼 놀라서 아이에게 캐묻고 상대한 아이를 가서 혼내며 그 집 부모에게 항의한다.

아이교육 좀 똑바로 시키라면 호통치며 무조건 사과를 하라고 하고 심한 부모는 보상을 요구하기도 한다. 남자아이 부모쪽에서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럴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지나치게 호들갑을 떠다며 기분 나빠한다. 당했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상대 부모의 태도가 더 잘못되었다면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며 갈등을 증폭시킨다.

유치원이나 학원 원장이 중간에 서서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화해는 커녕 유치원 책임도 있는데, 오히려 한쪽 편만 든다고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도 원만한 수습이 안되면, 이런 곳에는 못 다니겠다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나갈 이유가 없으니 상대쪽에서 나가라고 종용하기도 한다. 원장이나 교사도 문제에 대한 지각과 원칙없이 무조건적인 화해를 요구할 때도 있다. 괜히 소문이 나면 유치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까봐 쉬쉬하면 문제를 은폐하기도 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다 알다시피 성놀이와 성폭행을 구분하지 못해서이다. 자기 자녀만 중요한 유아기 어린이이고, 상대아이는 - 유아기의 어린이 - 가 아니라, 성추행범인 것이다. 모든 어린이가 유아기 어린이라는 것을 제일 중요한 개념으로 잡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것이 핵심 사항이다.

서로 즐겁게 놀면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모두가 관대하게 대해야 한다. 짓궂은 아이가 강제적으로 과격하게 힘을 행사한 일이라면 당한 아이는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하고, 그 짓궂은 아이는, 부모와 교사는 물론 당한 아이의 부모까지 더 정성을 들여 아껴줘야 한다. 그래야만 문제가 풀린다. 절대로 흉악범으로 대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대하는 것 자체가 장차 흉악범이 될 소지를 만드는 것이다. 성문제로 인해 파렴치한이 된 느낌을 받는다면 그 상처는 엄청 커서 심한 죄책감에 빠지거나 반항과 저항으로 더 심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다른 것보다도 성에 대한 문제는 그만큼 예민한 것이다. 조금 심한 성놀이를 한 대가 치고는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겠는가? 정말 그래서 안된다.

한편 뭔가 잘못을 했는데 혼날 줄 알았던 아이가 진심으로 사랑을 받을 때 아이는 부드러워지는 것이다. 의외의 대접을 받을 때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재미있어서 한 일이지만 상대방을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성은 어떤 행동이 아니라 인간관계라는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해주어야 한다. 아이고 어른이고 행동을 고치는 것은,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줄 때이다. 일단 좋은 아이로 믿어주면서 잘못을 알려줘야 고칠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변화된 모습이 보이면 한없이 칭찬을 해주어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런 과정이 계속되다 보면 안정감을 찾아가고 여유와 배려도 갖게 되는 것이다. 개구쟁이일수록 더 사랑해 주어야 한다. 정말 부탁드린다.

청소년기 어린이를 성폭행을 경우에는 사안별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무조건 신고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 청소년기의 상태와 행동의 동기를 잘 살펴봐야하고 주변 환경도 알아봐야한다. 청소년도 아직은 변화의 여지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개념이 이런 사건 속에서도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어떤 아이는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다. 밋더라도 청소년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중심에 두고, 진정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미운 감정으로 행동의 결과만 가지고 처리를 한다면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반항심만 키워줘 성인이 되어서까지 어린이를 괴롭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모두에게 고통스런 일인 것이다.

성인이 어린이를 성폭행했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 증거도 확보하고 법적으로 강하게 처리하는 것이 상책이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엄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으로 - 어린이 - 개념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 우리 부모들은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 교묘한

어른들에게 당했을 때는 쉽게 포기해버리는 반면에 청소년이나 또래 아이들에게는 지나치게 흥분을 하며 법적처리를 논하고 있다.

다시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유아기 아이들에게 성놀이와 성폭행을 구분 짓는 일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